

기고

임청규 강진소방서 119구조대장



고층건물 화재로부터 생명 지키기

최근 아파트와 병원 등 다수가 거주하거나 밀집되어 있는 장소의 화재가 빈발하다

그로인해 상가와 병원 등 다중이 거거하거나 출입하는 고층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느때보다도 커지고 안전제일이라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복합건축물과 같은 높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로부터 피하기 위해 창문이나 난간으로 추락하여 인명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위해 침착해야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을 면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신속하게 대피토록 해야한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동반하는 연기는 신체적 심리적, 시각적으로 치명적이고, 이로 인한 사망률이 불보다 높다

그래서 대피를 하다보면 출입문으로 탈출하게 되는데 이때 손잡이가 뜨겁다면 반대편에는 불길이 있을 확률이 많아 평상시처럼 문을 열게 되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화재발생으로 인한 대피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단이 연기 등에 막혀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다면 옥상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전력(電力)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화재 시 합선 등의 사유로 전기가 통하지 않아 내

부에 갇히거나 질식할 염려가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만일 엘리베이터 탑승 도중 화재 및 연기를 발견했다면 가까운 층에 내려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최근에 발생한 화재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다수의 인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하였다

민약 피난층으로 내려가기 어려운 경우라도 뛰어내리는 행동을 삼가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침착하게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의 건축물 3층에서 10층까지는 완강기나 구조대가 설치되어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피난기구는 주변에 자주 보이긴 하나 사용법을 몰라 쉽게

지나쳐버릴때도 많다

따라서 사용법을 익혀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건물 관계자들은 사용법 등을 정확히 알고 실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는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옷이나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에 대고 엎드려 기다리며 쉽게 눈에 띄는 물건 등을 흔들어서 구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평상시 화재 및 재난 등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언론매체 등에 귀 기울여 통제에 따른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위와 같은 대피 및 생존방법을 익혀두면 긴급할 때 나와 주변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화재에 대비하여 많은 설비와 장치를 개발하고 또한 실제로도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 좋은 장비가 설치만 되어있고 정착 사용할 줄 모른다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장비들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용되어야 할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

社說

상용차 운전자 교육 필요

국내에서 대형트럭 운전자가 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 도로의 위험 요소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불보트럭은 지난 5월 국내에서 16~65세의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형트럭이 도로 위에서 책임감 있게 운전한다는 응답이 54%에 그쳤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국내 다른 직업인 조종사(92%)와 의사(84%), 은행원(82%)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영국에서 진행된 대형트럭 운전자에 대한 같은 조사에서 나온 신뢰도(74%)에 한참 못 미친다

불보트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약 200만명 이상이 트럭 운전자를 하며 운전자의 평균 연령은 40~59세다. 이들은 하루 13시간 이상, 총 330km가 넘는 거리를 운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80%)은 대형트럭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트럭에 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86%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4차선 도로에서 대형트럭의 추월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고 46%는 경찰이 대형트럭에 대한 단속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려면 대형트럭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관계기관 등이 공동으로 힘써야 한다는 응답(60%)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운송 및 화물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65%였으며, 과반수의 응답자는 상용차 운전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려면 운전자, 차량, 인프라 등 모든 이해 부문에서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차량 기술혁신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숙련된 운전자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장마철 감전사고 조심하자

우리나라는 6월부터 장마철이 시작되는데요. 장마철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감전사고'입니다

강수량은 물론이고 습도가 점점 높아지는 장마철에는 감전사고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높은 온도로 오르는 불쾌감을 낮추기 위해 에어컨 등 냉방기기 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산업현장에서는 날씨가 상관없이 준비를 계속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폭우로 인해 물기가 많고 습도가 높아 쉽게 누전이 되는 등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감전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온이 올라가 짧은 옷

등의 간편한 복장 착용으로 신체의 노출 부위가 많아지고 땀으로 인해 인체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방 하는 방법으로는 평상시에 누전차단기를 월 1회 정도 시험용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하는 것이고 콘센트 플러그 등은 커버가 벗겨지거나 파손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파손되었다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마철엔 특히 폭우로 인해 전자기기 침수가 잦기 때문에 전기 설비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접촉 시 건조한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침수 시에는 콘센트나 전자기기 등을 통해 전기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제일 먼저 배전반의 전원 스위치를 내립니다

양수펌프를 사용할 때 전원 플러그, 전원용 전선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젖은 손으로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현장에서의 경우에는 가정용과 다르게 특히 고압의 전기를 다루기 때문에 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발생하기가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의 감전피해를 예방 할 때는 전자기기를 점검해야 할 때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고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접지를 반드시 시켜야하고 누전차단기

를 설치하여 감전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개폐기에는 반드시 정격 퓨즈를 사용하고 동선, 철선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불량이거나 고장난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전사고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꼭 예방이 필요합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가정의 누전차단기와 전기제품을 점검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위의 예방수칙을 실천하여 감전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를 간과하여 한순간의 사고로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김민수 / 함평 119구조대 소방사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堅持雅操

堅持雅操

▷ 뜻: 맑은 절조(節操)를 굳게 가지고 있으면 나의 도리(道理)를 극진(極盡)히 하는 것임

湖南新聞 publication details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